

中共 開放化政策의 指導와 執行

趙 先 運

I. 序 論

II. 政策決定目標

III. 마르크스-레닌理論의 導向

IV. 經濟의 戰略的 任務

V. 統制操作體系

VI. 結 論

I. 序 論

中共의 「對外開放政策」은 「對內開放政策」의 相對되는 말로서, 各各 「社會主義經濟體制改革」의 한 斷面을 代表한다. 鄧小平의 論理를 引用하자면, 中國共產黨 11期 3中全會는 對內的으로는 經濟를 活性化시키고 對外的으로는 經濟를 開放하는 政策을 確定했다.¹⁾ “對外經濟開放은 단지 美國, 日本, 西歐 등 先進國에 對한 開放만은 아니며, 이들 國家들에 對한 開放은 한 部門이다. 다른 하나의 部門은 南南協力으로, 바로 第三世界 開發途上 國家에 對한 開放이다. 또 하나의 部門이 있는데 蘇聯과 東歐國家에 對한 開放이 그것이다. 對內的으로 經濟를 活潑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對內開放이다. 이 모든 것을 일컬어 開放政策이라 한다.”²⁾

鄧小平의 論理를 한 걸음 더 나아가 分析해 보자. 「對內活性化」는 바로 「對內開放」인데, 이는 왜냐하면 中共이 毛澤東時代에 구축한 蘇聯의 스탈린式 經濟體制는 고도로 집중·통일되어 있고, 橫的으로 분할 되어 서로간에 봉쇄되어 있어 발전이 정지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鄧派는 이 橫

1) 鄧小平, “中國의 特色을 가진 社會主義를 建設한다.” (正字本), (香港: 三聯書店 香港分店, 1981. 1), p. 419.

2) Ibid., pp. 66~70.

의으로 격리되어 있는 국면을 반드시 뚫어야만이 비로소 경제를 活性化시킬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런 획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은 원래 상호간에 격리된 부문, 地區, 업종의 각자 입장에서 말한다면, 바로 그들 서로간의 相互開放이다. 이것은 中共의 「社會主義經濟體制」의 內部關係의 調整이며, 이 글에서는 論議하지 않겠다.

對外的으로 3개 방면에 對해 經濟를 開放하는 政策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鄧小平이 創案하여 始作했다고는 할 수 없다. 대체적인 歷史를 돌아다 보면 곧 이 점을 알 수 있다. 소위 '蘇聯과 東歐國家에 對한 開放'은 실제로는 中共이, 예전부터 이미 활짝 열려 있다가 한 차례 닫았던 門戶를 차례로 다시 새롭게 開放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中共政權이 세워진 후 前半 7年은 蘇聯에 對해 一邊倒의인 態度를 취함으로써, 당시 中共은 이 蘇聯 방면에 對해서는 門戶를 크게 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根本的인 門戶設定조차 必要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1956年 이후 中共과 蘇聯의 關係가 점차 惡化되면서 中共은 비로소 점차적으로 蘇聯에 對해 門을 닫았다. 이제 鄧小平이 다시 蘇聯에 對한 開放을 再論하는 것은 그가 對蘇關係의 改善을 바라고 있음을 나타낸다. 第3世界에 對한 開放이라 일컫는 바는 단지 毛澤東의 第3世界戰略의 계속적인 수행일 뿐이다. 中共은 毛澤東시대에 第3世界國家가 社會主義革命을 進行하도록 支援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았는데 鄧小平派는 세계 革命을 支援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中共은 南南協力の 구축을 특별히 선동하고 있고 世界經濟의 新秩序를 이룩할 것을 鼓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실은 국제계급투쟁의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美國, 日本, 西歐國家에 對한 開放이라 일컫는 것은 다 아는 바와 같이, 역시 毛澤東시대에 시작된 것이다. 鄧小平派는 毛澤東·周恩來가 세운 토대 위에서 확대하여 運用하고, 毛澤東시대의 넓이와 깊이를 훨씬 뛰어 넘어, 여기서부터 鄧小平派의 政策노선의 特徵을 형성하고 각 방면의 주의를 이끌어 낸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힘써 토의 할 문제이다.

II. 政策決定目標

中共은 그 「開放政策」이 미치는 3個 方面에 對하여 각각 다른 計劃을 가지고 있으며, 그 政策決定의 理論的 方向과 經濟的 戰略的 임무도 역시 각각 다른 데에 重點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中共의 對外開放政策의 意義를 토의하는 것은 모름지기 中共의 政策결정목표에서 시작하여 순서적으로 中共의 이론 方向, 戰略規模와 計劃, 그리고 통제제통을 연구해야 한다.

中共의 「開放政策」이 그 3個의 다른 方面에서 설정한 목표의 重點에 관하여 鄧小平은 1984年 11月 中央軍事委員會 좌담회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명확하게 피력한 바 있다.³⁾ 그는 “우리가 外資를 導入하고 技術 등등을 들여 오는 것은 주로 西方선진국가들에 對한 開放으로부터 온다”고 말하였다. 蘇聯과 東歐國家에 對한 開放은 지금 왕래가 가능하며, 장사하고, 技術合作을 하며, 심지어 合資經營, 技術改造 등 156個 項目의 技術改造에 그들은 힘쓰고 있다. 제 3세계 개발도상국가들은 모두 자기의 特徵과 長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많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

아래 열거한 사실은 中共이 이 原則에 비추어 처리한 약간의 구체적인 狀況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中共의 美國, 日本, 西方國家에 對한 經濟와 貿易關係의 發展은 中共의 대외 개방정책 가운데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日本은 中共의 첫번째 經濟와 貿易對象國이다. 中共과 日本의 貿易額은 1981년에 100億 달러를 돌파했으며, 1983년에는 99億 7,700萬 달러에 달하여 1982年과 대비해 보면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했다. 1972~1983년의 12년간 貿易額은 해마다 20% 가량 신장했다. 쌍방은 장차 1978年 2월에 맺은 長期貿易協議規定의 1978~1990年의 쌍방무역 총액이 200

3) *Ibid.* p. 63.

~300億 달러에 달하도록 노력한다는 目標에 의거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무역방식을 전개하고, 쌍방무역의 發展을 촉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⁴⁾

美國은 中共의 무역 파트너 가운데 日本과 홍콩에 이어 제 3위를 차지한다. 1983年 中共의 對美 수출입 총액은 40億 2,700萬 달러로, 1982년에 비하여 25%가 떨어졌는데,⁵⁾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 中共과 美國의 經濟·貿易關係는 장차 계속 발전할 것이다. 歐洲共同體(EC)는 中共의 4번째 무역 파트너이다. 1983年の 쌍방 무역액은 56億 6,900萬 달러로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 그 가운데 中共의 수출은 22億 2,000萬 달러로 中共 수출의 3번째 큰 시장이 되었다. 수입은 34億 7,600萬 달러로 中共에게는 日本에 바로 뒤 이은 제 2의 큰 공급자이다.

蘇聯은 中共의 對外 經濟·貿易關係 중에서 수치상으로는 비록 멀리 떨어지는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1983년에 많은 發展을 시작하여, 그 해에 6億 7,800萬 달러에 달해 1982년에 비해 1.4배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國家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⁶⁾ 倍增된 증가는 비록 기본적인 수치는 매우 낮고 초기에 발전해 갈 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역시 쌍방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希望을 반영한다. 또 中共의 경제전설이 현재의 기초위에 정착하고, 또한 현존 企業의 技術 개조를 위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蘇聯이 中共의 제 1차 5개년 계획에 대해 제공한 원조를 회고해 보는 것으로부터 또 그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발전 잠재력이 드러난다.⁷⁾

中共의 제 3세계 국가에 대한 經濟·貿易關係는 「互惠平等, 相互補充通商, 相互支援」의 原則을 취하면서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것인데, 그 가

4) 中國經濟年鑑編輯委員會, 「中國經濟年鑑(1984)」, Ch. IV, p. 26.

5) *Ibid.* p. 26.

6) *Ibid.* p. 26.

7) Jacques Guillermez,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Power (1949~1976)*, (Colorado, Boulden: Westview Press), pp. 82~83.

운데 주요한 국가는 아시아·아프리카의 48개 국가로서 무역액수는 1983년에 모두 102億 9,000萬 달러에 달하여 中共 輸出·輸入 총액수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

Ⅲ. 마르크스-레닌 理論의 導向

中共의 開放政策의 3개 다른 方面에서의 기초적인 理論方向에 關하여 概略적으로 言及한다면, 中共의 美國, 日本, 西歐國家에 對한 開放理論의 淵源은 벌써 레닌의 貨貸制度政策과 스탈린의 두개 시장병립의 이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中共의 제 3세계 국가에 對한 開放의 指導의인 思想은 毛澤東의 世界를 3개로 나누는 理論과 南南協力の 주장을 여전히 쫓고 있다. 中共이 蘇聯과 東歐國家에 對하여 다시 새롭게 開放을 하게 된 理論의인 基礎는 바로 최근 發展된 “社會主義 建設은 固定된 모델이 없다”는 理論이며, 蘇聯이 스스로 「發展된 社會主義」를 이미 建設했다고 宣稱하고, 中共은 또한 스스로가 「發展途上的 社會主義」라고 認定하여, 방향은 이미 「社會主義路線」 위의 이정표에 있어 각각 달리 자리잡고 있어, 자연히 서로 모자라고 남는 것을 보완하는 관계를 이끌어 내고, 왕래의 가능성을 넓힌다. 아래에서 中共의 對西方開放政策의 마르크스-레닌 이론의 方向을 중심으로 토의해 보려 한다.

1919년 3월, 레닌은 「국제 공산주의 강령」 제 5장에서 「蘇聯 프롤레타리아獨裁와 국제사회주의革命」을 논술하면서, 世界에는 두 가지 종류의 경제체제, 즉 蘇聯의 社會主義체제와 기타 국가의 資本主義체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과 蘇聯 프롤레타리아獨裁 국가의 經濟 方面에서의 임무를 이야기했다. 그는, “경제에 있어 수완을 운용하고 신용과 차관과 貨貸制度등의 형식을 취하고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경제적인 유대를 이용할 것이 요구된다. 外國과의 幅넓은 유대를 모든 힘을 경주하여 형성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유대를 강조하는 동시에 반드시 蘇聯에 有利한 限界 안

에서 進行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이 파괴 당하지 않고 자본주의 世界體制의 부속물로 변화되지 않도록 하는 보장을 공고히 한다”⁸⁾라고 주장했다.

레닌의 이러한 자본주의를 利用하는 策略이 바로 中共의 「對外開放政策」의 基本的인 理論方向이다.

레닌은 1921年 4월에 「食糧稅論—新經濟政策과 그 條件」의 글 가운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자 계급이 어떻게 國家資本主義의 기초 위에서 全國의 性格을 가진 큰 生産組織을 배치할 것인가를 반드시 배워 익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왜냐하면 이 모든 능력을 배워 익혀야만이 “蘇聯이 비로소 각 방면에서 有利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社會主義의 鞏固함도 비로소 保證받을 수 있다.”⁹⁾고 강조했다. 레닌은 같은 著書에서 全世界 자본주의 국가에게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고, 「貨貨制度」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그들에게서부터 「유상물수」를 실시하여 그럼으로써 곧 “소비에트 政權의 地位를 공고히 하고 우리나라의 經濟現象의 처리를 改善하는 일정한 條件을 획득한다”라고 했다. 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바로 資本家이다. 그들은 자본주의 방식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며, 그들이 프롤레타리아 政權과 合作하는 것은 보통 利潤보다 높은 利潤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거나 혹은 매우 얻기 어려운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에트 政權이 획득할 수 있는 利益은 바로 生産力을 發展시키고, 즉시 혹은 매우 짧은 기간안에 生産品을 증가하는 것이다”라고 한 바 있다.

레닌의 이러한 발언을 鄧小平의 발언과 對照하여 研究하면, 예를 들어 鄧小平이 말하기를, “아무튼, 門戶를 닫아 걸고 건설을 하였던 30 몇년의 경험은 좋지 않았으며 발전도 하지 못 했다.”¹⁰⁾, “西方의 政治家들이 만일

8) 中華民國國際關係研究所, 「共產黨原始資料選輯」 Vol. II, p. 54.

9) *Ibid.*, pp. 415~416.

10) 中共經濟年鑑編輯委員會, *op. cit.*, p. 37, p. 51.

發展途上國家를 돕지 않는다면 西方이 直面한 시장문제, 경제발전 문제 역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만 한다.”¹¹⁾, “우리는 國際 상공업체 인사들이 世界的인 視角에서 中國과의 合作을 고려할 것을 바라고 있다.……이런 종류의 合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中國은 條件을 만들어야 하며, 國家經濟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역시 條件을 만들어야 한다”¹²⁾라고 했는데, 鄧小平의 발언을 래닌의 당시 見解와 비교하면, 더욱 큰 의혹을 지닐 수 있다.

鄧小平派가 中共의 「文化大革命」기간의 「門戶閉鎖」를 비판했기 때문에 많은 일반인들이 毛澤東은 마치 자아고립政策을 수행한 것처럼 알고 있다. 이것은 理論과 現實에서 모두 充分한 根據를 缺乏하고 있다. 理論으로 살펴보면, 毛澤東은 中共政權 건립 전야인 1949年 6月 中에 이미 말하기를, “우리들은 장사를 해야 한다. 정말 확실하게, 아무튼 장사는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들 국가들(英國, 美國 등)과 장사하고 만일 이들 국가들이 장래에 상호 이익의 조건아래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 주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는 이들 국가의 자본가들은 돈을 벌고 싶어하고, 은행가들은 이익을 얻고 싶어하며 그럼으로써 그들 자신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¹³⁾라고 했다. 1956年 4月, 毛澤東은 「十大關係를 論함」이라는 한 글 가운데서 또 ‘外國을 向하여 배우자’라는 問題를 내 세우면서 말하기를, “이 구호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게 내세운 것이다. 어떤 국가 지도자는 감히 이 구호를 내세우지 못하며 또한 내세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약간의 용기만 있다면 바로 무대 위의 그런 자세를 버리려 할 것이다.”¹⁴⁾고 했다. 이런 말들은 毛澤東의 對外開放經濟에 對한 태도를 대체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다. 實際적으로 볼 때, 中共의 對外貿

11) *Ibid.*

12) *Ibid.*

13) 毛澤東, “人民民主獨裁를 論함”, 「毛澤東選集」 Vol. IV, 2nd ed, (人民出版社, 1968), pp. 1361~1362.

14) 毛澤東思想萬歲, (中華民國國際關係研究所가 複印한 紅衛兵資料), p. 57.

易은 제 1 차 5 개년 계획기간 중에 수출입 총액이 매년 10% 이상씩 성장했다. 1960~1962 年에 中共의 對外 經濟·貿易活動은 비록 축소되는 현상을 드러내고, 1962 年 輸出入 總額이 26 億 6,000 萬 달러로 떨어져 간신히 1954 年 수준과 비슷했지만, 그러나 이는 주로 「三面紅旗」가 만든 결과이다. 中共은 3 年間の 어려운 時期에 아무 商品도 수출하지 못했고, 아무 資金도 수입하지 못해서 門戶閉鎖政策¹⁵⁾을 실시했으며 현실에서 뚜렷하게 도피했고, 과장된 말로, 사람을 속였다고 말할 수 있다. '3 年間の 어려운 시기'가 지난 이후에 中共의 수입 총액은 해마다 상승하여, 1966 年에는 다시 46 億 2,000 萬 달러로 올라가, 1962 年에 비해 74%가 늘어났다.¹⁶⁾ 이 하나의 사실이 바로 具體的인 說明이다. 똑같은 이론이 中共의 10 年의 文化大革命기간동안 對外經濟活動이 정지되고 발전되지 못했던 일반적인 狀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설사 이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中共은 每年 봄과 가을의 두 계절에 廣州에서 舉行하는 무역 전람회를 종래 그만 두지 않아 始終 대외개방의 창구를 유지하였다. 「四人幫」이 당시의 對外貿易部가 '매국주의를 행했다'고 비판하는데 이르면, 수입을 崇洋媚外¹⁷⁾ (西洋을 숭상하고 자신의 利益을 爲하여 外國을 추종하는 것)라 불렀는데, 곧 어떤 것은 노선과 정책적인 모순에서 만들어진 비판이고, 어떤 것은 간부에 대하여 권력으로써 사욕을 도모하는 옳지 못한 태도를 취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년 이래 鄧小平派는 경제범죄를 소탕하고, 崇洋媚外의 心理를 비판했는데, 中共은 처한 위치가 달라져도 이런 종류의 현상에 대해서는 역시 똑같이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毛澤東은 1961~1962 年에 「蘇聯政治經濟學」을 읽고, 또 「讀書筆記」를 썼다. 이 筆記는 그가 스탈린의 '2 개 시장 양립'의 理論을 이어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世界의 두개 경제체제 사이에는 경쟁뿐만이 아

15) 劉國光編, 「中國經濟發展戰略研究」 1st ed., (上海: 人民出版社, 1984, 1), p. 531.

16) *Ibid.*, pp. 531~532.

17) *Ibid.*, p. 532.

나라 또한 격렬하고 광범위한 鬭爭¹⁸⁾이 있으며, 만일 단지 두개 세계체의 평화로운 경쟁을 제안하여 두개 세계체 사이에서 平和로운 發展의 경제관계를 세운다면 바로 實際 존재하고 있는 두 개의 세계시장을 統一된 世界市場가운데의 두개 경제체제로 바꾸어버리는 것으로, 곧 스탈린의 관점으로부터 후퇴이다.”¹⁹⁾라고 認定했다.

스탈린이 1952年 2월에 「統一的인 世界市場의 瓦解와 世界資本主義體系的 危機深化의 問題에 關하여」라는 보고를 하면서提起한 ‘두 개의 平行的이며 相互對立的인 世界市場의 理論’²⁰⁾을 中共은 어찌서 스탈린時代에 西方國家에 對한 ‘自己封鎖’의 根本的인 原因으로 삼았는가? 中共은 當時에 黨의 關係에서 蘇聯共產黨에 對해서는 ‘父子之間의 黨’의 關係였으며, 政權關係에서는 蘇聯에 對하여 事實上的 附屬的인 地位에 처해 있었다. 스탈린의 發言에 對해서는 自然히 命을 받들어 오로지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르시초프時代에는 中共이 비록 政治的으로는 蘇聯에 對하여 自主獨立의 地位를 爭取했지만 思想理論的으로는 오히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傳統을 더욱 굳게 지켰다고 혹자는 말한다. 對外的인 經濟·貿易關係 方面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스탈린의 ‘두 개의 兩立한 世界市場’의 理論에 따라 처리하여, 한 쪽으로는 西方에 對하여 연계의 흐름을 구하고, 한 쪽으로는 격렬하고 광범위한 鬭爭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兩立한 世界市場’의 理論은 역시 鄧小平派의 開放政策의 理論의 기초이다. 그들은 현재 세계경제의 基本的인 實際를 分析하여 4개의 문장으로 응집시켰는데, 이는 바로 “資本主義는 最後에는 반드시 멸망하나 獨占의 그것은 아직도 일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社會主義의 建設은 다른 路線과 方式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폭발과 중대한 변화가 나타

18) 「毛澤東思想萬歲」, p. 380.

19) *loc. cit.*

20) 스탈린, 「蘇聯社會主義經濟問題」(北京:人民出版社, 1954), p. 27.

났다. 開發途上國은 다른 발전방향에서 존재하고 있고, 양 끝이 작고中間이 큰 상태를 드러낸다. 국제 경제관계와 국제 경제조직은 以前에 없었던 발전을 이룩했다.”²¹⁾라고 했다. 제일 두드러진 표현은 바로 “社會主義經濟체제와 資本主義체제 사이에 상호鬭爭과 상호의존의 관계가 대대적으로 발전하고 강화되었다. 광대한 발전도상국가와 사회주의국가 그리고 발전된 자본주의국가 사이의 관계는 확대되고 심화되었다”.²²⁾ 이런 情勢에 직면하여 스탈린의 理論을 회고한 鄧小平派는 “지금 생각컨대, 스탈린의 이런 방면에서의 觀點은 매우 정확한 것이다.”²³⁾라고 인정했다.

經濟를 開放하고, 危機를 利用하며 鬭爭을 준비한다는 것은 레닌 이래로부터 일찍이 확정된 책략으로, 비록 공산당 지도자가 차례로 경질되고 세계정세가 변화되어서 책략의 운용에 있어서는 혹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對外開放政策을 실행하고, 資本主義를 利用하며, 社會主義를 強化하여, 최종적으로는 資本主義를 消滅시킨다는 기본 策略構造는 시종 불변이다. 제 3세계국가에 對하여 開放政策을 실행한다는 지도사상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2개 체제의 병립과 鬭爭에 종속된다. 中共에서 볼 때, 目前의 世界經濟의 기본 국면은 대개 4개의 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美國이 代表하는 發展된 資本主義國家, (2) 社會主義國家, (3) 蘇聯과 東歐國家, (4) 發展途上國이다. 世界經濟의 4개 부분들 사이에는 相互依存, 相互鬭爭의 關係가 存在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鬭爭의 최종 결과는 아마도 發展途上國家들이 매우 큰 成功을 거두고, 社會主義가 장차 세계적인 범위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중공은 여기고 있다. 여기서 일컫는 「社會主義國家」는 분명히 中共의 자기 호칭이다. 기타 3개 방면은 바로 中共의 對外開放政策의 對象이다. 中共은 당연히 감히 이 ‘최후의 승리’가 매우 빨리 도래하리라고 망상을 품지 못하며, 또한 ‘이것이 매우

21) 錢俊瑞, 「中國經濟와 世界經濟」, p. 24.

22) *loc. cit.*

23) *loc. cit.*

진 역사 과정이다'라고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中共이 이 併立共存의 時期에 「開放政策」을 실행하고 外來의 자양분을 흡수함으로써 그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져야 할 策略인 것이다.

IV. 經濟의 戰略的 任務

“社會主義國家 經濟發展의 戰略的인 目標은 共產主義社會로 社會가 매진하는 중요한 발자취이다. 戰略的인 目標을 制定하는 것은 바로 共產主義의 理想을 實現하기 爲해서이며, 人民大衆을 組織하고 動員하는 側面에서 巨大한 作用을 한다.”²⁴⁾ 中共政權은 1949年 建立 以來로 일찌기 이 基本原理에 입각하여 여러 차례 中共 경제발전의 戰略的 目標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1954~1958)에 中共은 生産手段 私有制의 社會主義 개조를 진행하는 동시에, 重工業의 發展을 우선 시키는 것을 그 국가사회주의 공업화의 初步的인 기초로 삼을 것을 경제발전의 主要한 戰略的인 目標로 하였다. 1958年 中共은 「三面紅旗」를 높이 들고, 2,3차 5개년 계획으로 발전 단계를 뛰어 넘어 共產主義社會에 도달할 심산이었으며, 바로 「大躍進」의 手段을 써서 生産力을 發展시키고, 또한 맹목적이고 토속적인 鐵鋼工業을 中心으로 高速成長을 追求하는 것을 經濟發展의 戰略으로 삼고, 十年內에 英國에 필적하고 15年 內에 美國을 따라 잡는다고 호언했다. 1966年 中共은 ‘戰爭준비, 불황준비, 人民을 爲하여’라는 政策決定指針下에 제 3차 5개년 계획을 시작했다. 설정한 경제발전 전략은 ‘國家의 經濟力과 國防力을 增進시키는 同時에 먹고, 입고 쓰는 問題를 해결한다’는 것으로, 文革爆發 後에도 경제건설에서 ‘革命을 꼭 붙들고 生産을 촉진한다’고 강조하여, 여전히 高速度의 經濟發展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였다. 이것이 毛澤東時代의 中共의 經濟戰略發展의 대체적 狀況이며, 그 사이에 비록 많은 황당한 行爲가 있었지만, 그러나 中共

24) 劉國光編, *op. cit.*, p. 87.

經濟發展의 戰略의 目標가 공허하고 환상적인 共產主義를 向하여 社會發展의 段階를 뛰어 넘는다라는 것이고 보면 이것을 오히려 이치적으로 볼 때 당연히 그럴 것이다.

中共의 현 단계의 經濟發展의 戰略의 目標와 그 구체적 내용은 1982年 中國共產黨 第12次 代表大會에서 제출된 것이다. 여기서 中共은 1981年 부터 今世紀末 工業·農業總生産量을 4배로 늘리고, 즉 1980年의 7,100億元(人民幣)로부터 2,000년에는 28,000億元(人民幣) 전후로 증가시키고, 人民의 평균 수입이 800달러로 小康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胡耀邦은 하나의 指導思想을 내 세우면서, “우리나라의 社會主義建設은 두 종류의 資源——國內資源과 外國資源——을 利用해야만 하며, 두 개의 市場——國內市場과 海外市場——을 打開하고, 두 개의 機能——국내 경제 건설을 組織하고 對外經濟關係를 發展시키는 기능——을 배워 익혀야 한다.”²⁵⁾고 강조했다. 胡가 일컫는 國外資源의 利用, 해외 시장의 打開, 對外 경제관계의 발전은 바로 中共의 對外開放政策의 戰略적인 任務이며, 이런 뜻에서 中共의 소위 對外開放이 實際로는 外國이 中共에 對하여 開放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더욱 합당한 견해이다. 對外貿易은 開放政策 가운데 가장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것의 임무는 對外的으로 상호보완통상, 調劑餘缺(남고 모자라는 것의 조정)하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피하며, 경제效率을 제고하고, 그리고 경제구조를 조정하여 合理化하도록 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생활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 세워진 對外貿易戰略은 수출戰略, 輸入戰略, 輸·出入종합전략, 그리고 國家別戰略 등을 포괄하고 있다.²⁶⁾

輸出商品構造는 低級한 것에서 高級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 原料型, 혹은 資源型 商品과 勞動집약형 商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

25) “中南海記事：한 重要的 政策의 誕生”, 「瞭望」 No.4 (1984.6.11).

26) 劉國光編, *op. cit.*, pp. 534~548.

하고, 技術, 知識집약형 商品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國際貿易局의 표준에 따라 分類한 바에 따르면, 中共의 一次産業 商品과 工業完製品의 비중은 1982년에 45% 對 55%였는데, 中共이 만약 低級과 高級 輸出商品의 비례구조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는 실로 한 걸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이후의 輸出商品은 여전히 광산물, 특산물, 공예품, 방직 등 경공업 제품, 그리고 약간의 기계생산제품이 주가 될 것이다.

수입상품은 現代化 遂行의 需要를 감안하여 生産手段이 차지하는 比重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다. 生産手段의 수입 가운데는 또한 新技術과 플랜트설비 그리고 電機産業製品이 중점 대상이며, 1990년대까지 全 輸入額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品目은 즉, 선진기술과 기계설비, 새로운 형태의 양질의 재료와 약간의 필수적인 소비재가 위주로 된다. 그러나 如何間에, “經濟效率, 技術進步와 國內生産의 矛盾을 精確하게 처리해야 하며, 國內에서 충분히 제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설비와 특별히 日用消費財를 盲目적으로 수입해서는 안 된다.”²⁷⁾라고 胡耀邦은 강조했다. 輸入과 輸出, 兩者間의 關係를 精確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輸出入 綜合戰略이다. 中共은 이후에도 마땅히 수입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기 위해서 팔아야’하는 것을 더욱 ‘팔기 위하여 사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對外貿易은 단지 商品을 交換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生産을 발전시키고 經濟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인정했다.

國家別 전략의 제안은 對外的으로 광범위한 鬭爭을 進行시켜야 할 필요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강조되는 것은 ‘對等의 原則’이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美國은 中共의 섬유제품에 대해 제한했는데, 中共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면화와 화학섬유를 구매한 바, 미국의 이런 사무처리 방법을

27) 胡耀邦, “社會主義現代化建設의 新局面을 全面的으로 開創하자”, 中國共產黨 第12次 全國代表大會文件匯編, p. 27.

無理한 것으로 인정하여 相對原則을 가지고 鬭爭을 진행했다. 今後에도 各國과 貿易을 진행할 때에는 역시 相對原則을 주의하여 운용할 것으로 본다.

外資를 利用하는 것은 中共의 開放政策의 다른 하나의 중요한 戰略的 指針이다.²⁸⁾ 그 기본적인 원칙은 “國際와 國內狀況으로부터 출발하여 ‘積極穩定’의 정신, 즉 戰略상으로는 마땅히 적극적이고 전술상으로는 마땅히 온건히 타협하는 정신을 굳게 지키고, 計劃을 세움에 있어 마땅히 깊이 따지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며,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에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순서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中共이 資本主義國家의 資本을 利用하는 것과 ‘4개의 기본 원칙’을 굳게 지키는 것 사이에는 어떤 矛盾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外國의 資金을 合理的으로 利用하는 것은 本國의 경제와 기술을 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유효한 방도이며, 이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모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美國은 1897~1904년에 10億 달러 이상의 外國 投資를 흡수했으며, 1940~1945년에 外國人의 美國에서의 投資는 140億 달러에서 180億 달러로 증가하여 美國人의 對外投資를 넘어섰다. 蘇聯은 10月 革命 初期에 레닌이 바로 外資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주장했으며 또한 貨貨制度, 合資經營, 차관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당시 경제 회복에 상당한 작용을 하도록 했다. 1930년대에 西方에 대공황이 발생하자 蘇聯은 이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여, 外國차관을 받아 들이고,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고, 外國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적지 않은 큰 프로젝트를 이룩했다. 蘇聯의 「1.5計劃」은 약 2/3의 프로젝트가 美國, 獨逸의 資金과 技術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1960년대부터 蘇聯과 東歐諸國은 서방 차관을 더욱 많이 받아 들이고 또 求償貿易方式을 통하여 外資를 利用하여서, 1981年 말에 이르러서는 西方에 對한 차관금액이 이미 800여億 달러에 달했다.

28) 劉國光編, *op. cit.*, pp. 549~566.

蘇聯의 外資利用方式을 바로 中共이 모방해서 배운 것이다. 中共이 外資를 利用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종류는 직접 投資를 흡수하는 것으로 4 종류의 方式이 있다. (1) 合作開放으로, 주로 海上石油 探查와 開發에 利用된다. (2) 合資經營, 共同投資로, 投資 比率에 따라 利潤을 分配하고 또 위험을 分擔한다. (3) 合作經營, 또는 「契約式 經營」으로 일컫는 것으로, 獨立的인 經濟實體가 法人의 地位를 갖추는 부분말고도, 다수가 단지 생산, 경영부분에서 合作을 進行하여, 中共은 工場 부지와 건물을 提供하고 상대방은 설비를 提供하여, 합동으로 規定한 比率에 따라 輸入과 利潤을 分配한다. (4) 補償貿易(求償貿易)으로, 外國商社의 投資를 흡수하고 企業이 직접 생산한 製品이나 혹은 批准을 受 ける 其他 商品으로 上환하는 것이다.

두번째 종류는 外國政府와 國際金融組織으로부터 提供되는 中長期借款이다. 그 주요한 效果는 4개 方面에서 드러난다. (1) 에너지 開發과 鐵道, 港口의 建設을 強化하기 위함과 (2) 약간의 建設이 正지되고 建設이 연기된 프로젝트와 문 닫는 企業들을 지원 (3) 中小企業의 技術改造를 추진함과 (4) 生産관리 수준을 제고했다. 中共은 合營企業의 처리를 통하여 外國企業의 生産技術과 經營管理 方式을 導入하고 배웠다.

經濟特區의 開設과 觀光旅行의 開放, 그리고 對外人力輸出등은 모두 「對外開放政策」 아래에서 새로 나온 형태이지만, 그러나 역시 모두 對外經濟貿易의 展開와 外資吸收·導入에 속하는 종류라고 분석할 수 있으므로 다시 中언부언하지는 않겠다.

V. 統制操作體系

中共 「對外開放政策」의 實質的인 意義를 깊이 理解하기 爲하여 統制操作體系로부터 그 本來的인 면모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中共의 政策決定의 前提, 人物, 過程과 執行機構를 研究하는 것으로부터 判별할

수 있다.

中共이 對外開放政策을 決定하는데 있어 基本前提는, 「開放」이 그들을 다 해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鄧小平은 1984년 10월, 顧問委員會 全體會議에서의 발언 가운데서 이 점을 說明했다. 그는 “開放은 우리들을 다 해치지는 않는데, 우리들 중 어떤 동지는 나쁜 물건을 들여오지 않나 두려워하고 資本主義로 변질될 것인가 아닌가를 제일 걱정한다. 아마도 우리들 몇몇 늙은 동지들은 이 걱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일생동안 社會主義, 共產主義를 行했는데 갑자기 資本主義가 뚫고 나오면, 이것은 참 아낼 수 없는 것이며,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영향이 없다.”²⁹⁾라고 말했다. 1985년 1월 鄧小平은 홍콩의 「中華電力公司」主席등 일행을 접견하면서 이 점을 또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어떤 사람은 ‘中國의 開放政策이 資本主義로 이르륵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하나, 만일 진자로 資本主義에 이르륵한다면, 우리의 이 정책은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우리 정책이 資本主義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開放政策을 實施하면 약간의 자본주의 요소가 들어오지만 그러나 사회주의의 역량은 더욱 크며, 또 더욱 큰 발전을 거둘 것이다. 社會主義의 비중은 항상 우세를 점할 것이다.”³⁰⁾라고 강조했다.

「解放軍報」는 對外開放政策을 執行하는 過程中에 「4개 기본 원칙」의 실제적 처리 방법에서 이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째, 特殊政策을 實行한다고 해서 그 特殊함에 결코 限界가 없는 것은 아니며, 또 特殊함도 역시 政治的으로는 반드시 黨中央과 더불어 一致되어 維持되어야 하며, 「5개의 전지」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즉 4個項의 基本原則을 堅持해 내야 하는 것이다: 統一的인 大政方針을 堅持한다, 計劃的인 指導와 全國的으로 綜合的인 均衡을 堅持한다, 國家的인 任務의 완성을 堅持한다, 對外的으로 一致됨을 堅持한다. 둘째, 社會主義經濟의

29) 鄧小平, *op. cit.*, p. 55.

30) 「光明日報」(1985. 1. 20).

基礎는 동요될 수 없다. 中共의 全民所有制 單位들이 소유하고 있는 固定資產과 定額流通基金은 1983 년에 이미 10,000 億元 前後여서, 200 億 달러의 外換을 利用한다고 해도 全體國民經濟 가운데서 차지하는 比重은 여전히 매우 작은 것이다. 세째, 共產主義를 핵심으로 하는 社會主義 精神文明의 建設을 계속해서 곳곳하게 進行시키고, 長期的으로는 부르조아계급의 精神汚染에 對한 투쟁을 展開해야 한다는 것이다.³¹⁾

鄧小平派는 반복하여 中共의 對外開放政策을 說明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中共黨 안에서 아직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에 對하여 회의적으로 觀望하고 비평하고 반대하는 태도를 품고 있음을 반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鄧小平派가 그들 스스로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理念과 策略에 비추어 일해 나가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것을 더욱 더 證明하고 있다. 만일 스탈린의 ‘두 개의 對立하고 있는 世界市場’의 理論을 運用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자면, 즉 中共이 外資導入을 開放하고, 外國의 資本家와 華僑資本家들이 中國大陸에 와서 단독으로 투자하거나 혹은 中共과 合資하여 企業活動을 하도록 허가한 것은, 雇傭, 또는 賃貸의 手段으로써 그들을 社會主義市場 가운데로 吸收하여 부려먹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中共의 對外投資는 바로 그 ‘社會主義 全民所有制企業’을 資本主義國家에 투입하여 거기에서 營養분만을 흡수도록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中共이 對外開放政策을 풀었다 죄었다하는 것은 실제로는 모두 鄧小平, 胡耀邦 등 극소수의 뜻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經濟特區의 확대와 축소이다. 1979 年 4 월에 鄧小平은 經濟特區를 創設하는 問題를 제기했다. 그는 “廣東省에서 한 地方을 떼어내어 特區라고 부를 수 있다. 陝西, 甘肅, 寧夏省에 特區를 둘 수 있겠는가! 中央에는 돈이 없으므로 당신들 스스로가 일 해 나가야 하며, 한 가닥 험난한 길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中共이 그해 7월에 심천(深圳), 주

31) 郭子森, 李福生, “對外開放政策의 몇가지 認識問題에 關하여 一調查報告”, 「解放軍報」(1984. 8. 28).

해(珠海), 선두(汕頭), 이문(廈門)의 4개 市를 部分的인 地區로 나누어 시험적으로 特區를 설치한 緣由이다. 1982年 陳雲은 한 文獻에서, ‘特區가 설치된다면, 반드시 끊임없이 경험을 다 모아서 特區가 잘 되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자기 의견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實際로는 特區政策에 對한 비판인 것이다. 胡耀邦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特區에서는 새로운 사항은 새롭게 처리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항은 특별히 처리해야 한다. 새로운 사항을 새롭게 처리한다는 것은 바로, 입장은 변하지 않지만 方法은 完全히 새롭게 한다는 것으로 共產黨員의 立場은 變化할 수 없는 것이다.” 1985年 1, 2月 사이에 鄧小平은 福建省과 廣東省의 特區에 가서 살펴보고, 그 곳에서 격려발언말고도 經濟特區가 잘 되었다고 찬양하고, 北京에 돌아와 다시 즉각 좌담회를 열어 한 걸음 더 나아가 沿海의 港口都市를 開放하는 問題를 提起했다. 2개월 후에 바로 北으로 大連에서부터 南으로는 廣西省의 北海까지 14개 港口都市를 開放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同一한 時期에, 趙紫陽은 바로 1985年 1月 下旬에 「三角洲地區 經濟座談會」를 조직하고 長江(양자강) 三角洲, 珠江 三角洲 그리고 福建南部의 廈, 漳, 泉 三角洲를 開放할 것을 決定했다.³²⁾ 해안 지방의 開放作業은 이때에 이르러 피크에 도달했으며, 全過程을 回顧해 보면 모든 것이 鄧小平, 胡耀邦, 趙紫陽의 손 끝의 조종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陳雲의 비판은 오히려 開放을 확대하도록 자극한 요소가 된 듯하다. 그러나 鄧小平派의 이런 모험적인 開放政策은 올해 6, 7월 사이에 이르러 곧 바로 問題를 일으켜 부득불 축소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鄧小平은 7월 15일 트리니다 드토바고의 챔버스首相과 會見할 때, “特區는 단지 하나의 시도로 현재도 약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³³⁾라고 표현했으며, 谷牧은 바로 같은 날에 前에 開放했던 14個 港口都市 가운데 上海, 天津, 大連, 廣州의 4개 都市만 제외하고 其他 10개 都市는

32) 「瞭望」No. 24(1984): 「文匯報」(香港: 1985. 2. 2).

33) 「文匯報」(香港: 1985. 7. 16).

進行을 잠시동안 늦춘다고 선포했다.³⁴⁾

以上の 中共經濟特區의 創設, 擴大, 部分的인 잠정 연기의 政策決定過程의 例로서, 中共의 對外開放政策의 決定과 具體的인 조치들이 往往 過多한 個人意思의 要素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당내에 격렬한 모순이 발생했음을 說明해주며, 그 기간동안 潛在해 있던 변수들을 鄧小平이 生存하고 있는데도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데, 일단 鄧小平이 집무하지 못하는 以後에 발생할 변화는 예상하기 어렵다.

中共이 社會主義經濟體制의 改革을 實行하고, '政府와 企業의 職務와 責任의 分離를 實行'하여서 各級의 政府部門은 原則的으로 企業을 다시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企業을 직접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할 책임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小數의 政府經濟部門은 역시 簡單한 政府와 權限放任의 原則에 비추어 소속 기업과의 關係를 精確하게 처리하여야 한다.³⁵⁾ 이 原則에 비추어 中共의 對外開放政策의 實務執行機構는 대부분 公司의 面貌로 나타난다. 이들 최근 출현한 公司는 理論上으로는 中共이 그 「社會主義全民所有制企業」의 所有權과 經營權을 分離하여 企業에 내려 주어, 企業으로 하여금 하나의 經濟實體 혹은 法人이 되도록 해 世界市場에서 活動하도록 投入된다. 實際上으로는, 예를 들어 中共의 國際信託投資公司는 國務院의 領導에 直屬된 部級機構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종류의 업무가 결합된 하나의 經濟實體인 것이다.³⁶⁾ 中共의 有色金屬工業總公司는 國務院에 直屬된 局級에 相當하고, 中央과 國務院의 有關部署, 그리고 省, 市, 自治區와 더불어 직접업무 關係를 가지며 海外와 직접 經濟와 科學技術의 交流를 進행하는데 그것도 역시 社會主義全民所有制企業으로 國家에 對하여 經濟的인 責任을 맡고 있고, 法人의 資格을 갖추고 있으나 또한 政權機構의 손아귀에서 完全히 離脫하지 못했다.³⁷⁾ 이것으로부터, 中共의 經濟

34) 「大公報」(香港: 1985. 7. 16).

35) “中共中央의 經濟體制改革에 關한 決定”(1984. 10. 20).

36) 中國經濟年鑑編輯委員會, *op. cit.*, ch. V, p. 197.

37) *Ibid.*, ch. V, p. 152.

體制改革, 一般的으로 일컬어지는 「政治, 企業分離」의 그 적절한 意義는 企業으로 하여금 黨과 政權機構의 統制로부터 離脫하여 自主獨立하게 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단지 中共政權體系內部的 再分業에 지나지 않는다. 鄧小平派는 그 黨, 政, 軍, 文, 特務系統 以外에서는 따로 한가닥 經濟幹部 라인을 만들어서 경제왕국을 통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外國資本家가 中共과 왕래할 때 파트너는 역시 보통 상업계, 財界人士가 아니라 眞正한 中共의 經濟官僚인 것이다.

Ⅵ. 結 論

中共對外開放政策의 指導와 執行을 全面的으로 살펴보고, 그 思想論과 策略의 淵源을 探究하고, 그 事物의 동요를 거슬러 올라가고 풀었다 죄었다하는 歷史의 반복을 추스르고, 현 단계의 정책 결정 목표와 經濟戰略과 統制操作系統을 解剖하고 分析하며, 겉질을 벗겨내고 本質을 캐낸다면, 아래 열거한 기본적인 특징들은 확연하게 우리들 눈 앞에 드러난다.

1. 二重性

레닌이 1919년 제출한 ‘世界上의 두 종류의 經濟系統’의 理論과 「資本主義經濟에 對한 聯繫의 利用」의 策略³⁸⁾으로부터 60여년 以來, ‘두 개의 世界市場 併立’³⁹⁾의 概念은 始終 共產黨政權의 그 世界的인 經濟活動 軸策의 中心이다. 鄧小平派의 理論家는 ‘目前的 世界經濟의 基本局面’에 對한 四分法⁴⁰⁾과 그의 ‘目前的 世界의 基本的 實際’의 5개 항목의 特徵에 대한 見解는⁴¹⁾ 實로 레닌, 스탈린의 理論策略과 一脈相通하여, 모두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연계가 敵對的 體系에 대한 往來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중

38) 本文의 註 10), 11)을 參照.

39) 本文의 註 22)를 參照.

40) 本文의 註 10), 11)을 參照.

41) 本文의 註 23), 24), 25), 26)을 參照.

류의 往來는 바로 그 파트너가 번영을 계속하고 자기쪽의 힘이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상황 아래서 부득불 일정 기간동안 併立共存해야 하는 存立鬭爭의 發展策略이다. 中共은 社會主義經濟體系와 資本主義經濟體系의 政治의 측면에서의 對立과 경제적 실무 측면에서의 開放往來를 堅持하고 現實의인 利益을 추구해야하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므로, 開放對象者에게는 적어도 동등한 政治의 警覺心を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2. 策略性

中共은 '目前의 世界經濟의 基本局面'을 4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 스스로는 '社會主義國家'方面에 위치하고 있고, 그 나머지 3개 큰 부분은 모두 中共의 開放의 對象이다. 이런 분류는 中共의 3개 世界區分理論과 비록 完全히 一致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策畧을 運用하는 가운데 오히려 相互補充作用을 발생시킬 수 있다. 概括的으로 이야기하자면 中共이 일컫는 바 '美國이 代表하는 발달된 資本主義國家'와 '蘇聯과 東歐國家'는 대체적으로 '第一世界'에 相當한다. 所謂 '發展中國家(開發途上國)'는 바로 '第三世界'의 同意語이다. 그러므로 中共이 世界經濟領域 안에서 現行의 經濟制度를 打破하고 따로 새로운 世界經濟秩序를 세우고자 선동하는 것을 만약 政治적인 각도에서 관찰하면 바로 계속적인 국제 계급 투쟁의 展開이다. 이는 바로 中共이 전개하는 '國際反霸權統一戰線'과 서로 表裏의 關係로, 對外經濟開放은 實際로 國際統一戰線策略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3. 反覆性

歷史를 관찰하면 中共은 事物이 反覆되는 선명한 特色을 가지고 있다. 中共政權 성립 이후, 前半 7年은 對蘇聯一邊倒이고 西方에 對해서는 門戶를 閉鎖했다. 그 후 對蘇關係가 惡化함에 따라 蘇聯에 對한 門戶는 갈수록 닫히고 팍팍해졌으며, 西方에 對한 門戶는 갈수록 열리고 커졌다. 즉

相反되는 方向으로 거의 같은 보조로 발견했다. 1979 年 中共의 對美修交는 하나의 轉換點이었다. 이 以後부터, 中共은 美國에 對하여 聯合하는 가운데 투쟁을 잊지 않았고, 蘇聯에 對하여는 투쟁하는 가운데 聯合을 잊지 않아서 蘇聯에 對한 門戶는 바로 또 그 美國에 對하여 '聯合할 뿐만 아니라 투쟁하는 것'과 同時에 발 맞추어 開放했다. 現實을 관찰하면, 中共은 또다시 풀었다 죄었다 하는 것을 수시로 展開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中共이 1979 年 '戰略的인 工作 重點의 轉換'을 決定한 以來로 外部의 힘을 빌리는데 특별히 치중했으며, 對外開放의 발걸음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 그러나 이 6년의 시간 안에 中共은 모험적으로 協約을 체결했다가 또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15개 항구도시를 명목적으로 開放했다가 또 돌연히 그 가운데 10개 항구의 개방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던 기록을 갖고 있다.

4. 無常性

中共의 「對外開放政策」은 그 「社會主義體制改革」의 한 측면으로, 다른 측면은 「對內開放政策」이며, 兩者가 결합하여 하나의 全體를 이루며 兩者는 모두 「體制改革」의 영향을 받았다. 「對外開放」은 더욱 「對內開放」의 制約을 받고 있다. 根本的으로 관찰하면, 「經濟體制改革」은 바로 鄧小平一派의 손에서 展開되고, 鄧派의 構力移讓作業이 아직 完成되지 않아, 「體制改革」은 바로 趙紫陽이 최근 소집한 黨全國代表大會에서 발언한 바대로 이후 5년이 定型을 찾는 時期가 될 것이다. 그 최후의 成敗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잠시 論하지 말고 바로 目前의 상황을 거론한다면 鄧小平派는 아직도 過渡期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 기간동안 장악하기 매우 어려운 많은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5. 局限性

앞에 말한 것처럼, 中共의 對外開放政策은 겨우 經濟實務 측면에 한정

되어 있으며 社會主義經濟의 根本制度는 계속 전지될 것이다.

經濟特區의 創設, 沿海港口都市의 開放, 觀光旅行事業의 開放 등은 역시 모두 經濟實務側面에서 착안된 것으로, 實로 레닌의 「賃貸制度」策略의 發展된 運用이다. 政治, 文化側面에서는 여전히 封鎖政策을 계속 實行하고 있어, 所謂 「汚染은 排除」하지만 「外國을 排除」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所謂 브르조아 階級の 精神汚染에 反對하는 鬭爭의 展開는 모두 政治封鎖政策의 새로운 形式인 것이다.

結論的으로, 中共의 「對外開放政策」의 指導와 執行은 그 理論, 策略, 思想의 淵源을 갖고 있다. 現實環境의 主觀的 必要에 따라 經濟利益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政治的인 統一戰線의 謀略目標도 갖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全般的인 研究를 통해 全體를 파악해야만이 中共의 참모습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